

코로나를 대하는 韓-中 패션계 정반대 태도

서울위크 강행 vs 상하이 취소... “어쩌면 기회”

文 “경제회복 흐름 되살리는 노력”
국내 정부주도행사 차질없이 진행

상하이위크 상황 따라 중단 가능성
뉴욕위크, 코로나여파 흥행 반토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중국 패션 컬렉션이 줄줄이 취소하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상반기 정부주도의 국내 대형 패션행사들은 개최 강행 조짐을 보인다.

◆정부주도 국내 대형 패션행사 개최 강행

서울패션위크가 일정 변경 없이 행사를 강행한다. 서울패션위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패션행사다. 오는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 오는 3월 25일 개최를 앞둔 2020 FW 패션코드 역시 개최된다.

정부주도 국내 대형 패션행사들의 개최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 최고경영진과 가진 코로나 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2020 서울 패션 위크

함심해 코로나 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주도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최대 섬유교역전인 2020 프리뷰인대구가 3월 4일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사 취소를 공식 발표하면서, 3월에 예정된 국내 대형 섬유 패션 국제행사들 연이은 취소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결정된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 행사들이 일제히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패션계 큰손 중국은 줄줄이 취소

국내 대형 패션 행사가 강행될 조짐을 보이는 반면, 중국 현지 패션위크 및 기업 패션쇼 등 각종 섬유패션 행사들이 공식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

3월 26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0 FW 상하이 패션 위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식 연기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시장을 타킷으로 하는 패션브랜드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온타임쇼’ ‘메이드상하이’ ‘쇼룸 상하이’ 등 상하이 패션위크와 함

께 개최하는 프레젠테이션 행사 및 브랜드 참여 행사들이 함께 연기될 조짐을 보인다.

상하이 패션위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션업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6일 뉴욕 패션위크를 시작으로 런던, 밀라노, 파리 순으로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4대 도시 패션위크도 이번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뉴욕 패션위크도 중국 VIP 고객 불참과 아카데미 시상식과 날짜가 겹치면서 흥행이 반 토막이 나며 역대 최악의 뉴욕 패션위크로 기록됐다.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해외 패션위크 참가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밀라노 패션위크의 경우 디자이너 안젤라 체, 리코스트루, 후이 등 비록 중국 바이어와 언론인, 스타일리스트 등 1000여 명이 행사 취소 통보했다. 각국 패션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 중계로 중국 시장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얼어붙은 중국 바이어들의 마음을 녹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자본 없는 패션위크... ‘기회 vs 위기’

상반기 정부주도의 국내 대형 패션 행사에 대한 패션업계의 평가가 다양하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다. 서울패션위크는 기존 시민참여형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서울컬렉션과 GN컬렉션, GN쇼 등 패션쇼와 전시회에 전문 행사로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패션코드 측도 “FW 시즌에 맞춰 비즈니스 행사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전문행사도 진행되더라도, 16일 29번째 국내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 소극적인 바이어의 참여 및 국민 불안감 증폭 등 패션 산업 활성화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흥행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전 세계 패션 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강행하는 행사들이 국내 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컬렉션과 패션코드 모두 중국 바이어의 영향력이 큰 행사이므로, 행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체험·전시 아우르는 스토어 ‘을지다락’

코오롱FnC 전개 5개 브랜드 한눈에
20년 된 기존 건물원형 그대로 유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서울 을지로에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 ‘을지다락’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을지다락은 코오롱스포츠, 커스텀멜로우, 시리즈, 에피그램, 레코드 등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5개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를 표방한다. 단순한 상품 판매만이 아닌, 카페와 전시, 체험 등을 함께 아우르며 고객이 오감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을지다락은 을지로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최근 을지로는 60~70년대 서울의 모습을 간직하는 동시에 뉴트로풍 카페와 레스토랑이



코오롱FnC 을지다락 외관 이미지

속속 생겨나면서 ‘힙지로’라 불릴 만큼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받고 있는 장소. 이처럼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골목에서 을지다락은 신규-기존 고객 모두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을지다락 건물 역시 20여년 된 기존 건물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판도 주변 분위기에 맞게 무채색으로 디자인하여 상권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조효정 기자

LF, ‘어라운드더코너’ 유통망 확대 본격화

총 5개 매장 추가 오픈

생활문화기업 LF의 스트리트 편집숍 브랜드 ‘어라운드더코너(around the corner)’가 지난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어라운드더코너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몰링족’을 겨냥해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6번째 매장을 열며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 타임스퀘어점, 인천점, AK홍대점에 이

어 지난해 12월에는 동성로점을 오픈하며 지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했으며, 올해 말까지 AK수원점, 스타필드 안성점, 인천구월점 등 총 5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해 오프라인 영향력을 높이는 계획이다.

어라운드더코너 롯데월드몰점은 총 330㎡(100평)의 대형 규모로 구성되어 최신 유행하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 기타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램시마SC 유럽학회서 톱10 하이라이트 선정

셀트리온

2020 유럽 크론병·대장염학회 발표
궤양성대장염 환자 임상데이터 공개

셀트리온이 지난 14일(현지시간) ‘2020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에서 발표한 램시마SC의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임상 결과가 ‘톱 10 하이라이트(Highlight of ECCO)’에 선정됐다고 16일(한국시간)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 15회 ECCO 학회는 전문 의료진을 비롯해 화이자, 애브비, 바이오젠, 다케다 등 세계 유수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ECCO 측에 제출한 램시마SC 임상 결과는 데이터의 정확도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 가운데 올해 하이라이트 발표로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구술 발표에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숨론 벤 호린 교수 구술 발표 장면

/셀트리온

1년간 유효성 및 약동학, 안전성 등을 측정할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임상은 6주차부터 54주차까지 SC를 계속 투여 받은 환자군과 IV 투여에서 30주차에 SC로 교체 투여 받은 환자군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두 집단 모두 혈청 약물 농도와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치료 초기에 IV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후 약물 효과를 유지하며 병원 방문없이 환자 스스로

투여를 가능하게 하는 ‘듀얼 포물레이션’ 전략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이날 발표에 나선 숨론 벤 호린스라 엘 텔아비브 대학 세바 메디컬센터 교수는 “IB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54주 간의 임상에서 램시마SC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IV에서 램시마SC로 교체 투여해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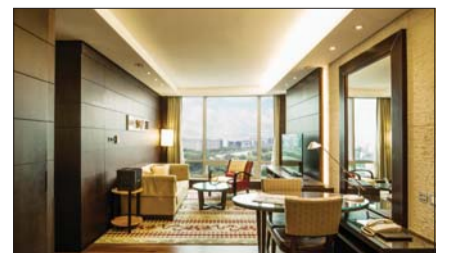
여의도메리어트 기생충 오스카 수상기념 패키지

여의도파크 센터, 서울-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이하 ‘여의도 메리어트’)는 한국 영화 최초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축하하기 위하여 ‘집 밖은 위험해’ 패키지를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Home awayhome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에서 영화 ‘기생충’의 편의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패키지에는 키친 설비 및 주방 도구, 냉장고 냉동이 모두 가능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욕조 등이 갖춰진 스위트



집밖은위험해 패키지

객실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한가득 담겨있다.

/조효정 기자